

제2340호 2019.1.13. 주님 세레 축일

강론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태초부터 감추어진 하느님의 신비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피조물들과 나누고자 했던 하느님의 큰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당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분 하느님으로 계시던 말씀이 여기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어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세레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하느님께로 되돌아서야 할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히려 죄인들 틈바구니에 섞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세레, 그것은 결국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사랑이신 분의 명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지의 실천입니다. 나의 뜻은 물 속에서 물과 함께 씻어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채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들,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들을 물속에 남겨두고, 오로지 사랑 그것 하나만을 향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생명을 갇아먹던 모든 것들을 물속에서 털어내고, 생명이신 하느님께로 되돌아서고자 함이 곧 세례입니다.

지난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이어 오늘 주님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또다시 공개됩니다. 목동이나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에서부터 직접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하고자 기꺼이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이들,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는 모든 사람의 아들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스스로의 신원을 성찰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봅시다.



김정우 라파엘 신부 | 진해장애인복지관장

주일 진례

4면 문화

**제1독서** 이사 42,1-4.6-7 또는 이사 40,1-5.9-11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2독서**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청원 기도 1 - 미사와 성무일도

전례 안에서의 청원 기도는 미사성제와 성무일도(시간전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사 중의 기도는 보편 지향 기도(신자들의 기도)라 부르며 성무일도의 기도는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시대의 변천으로 없어졌다가 복구'(전례헌장 n.50)된 것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갖 공경에 짓눌리는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n.53)" 간청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은 ㄱ)교회, ㄴ)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ㄷ)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ㄹ)지역 공동체, 이렇게 기도의 일반적 순서를 제시합니다.

성무일도는 삶 전체를 포괄하고 다양한 시간과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와 인간의 갖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형태의 청원 기도들이 사용되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날과 그날의 일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의 청원 기도는 그날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시간전례는 전체 교회에 의한,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서는 일반적 필요성을 위한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 교회의 봉사자들, 국가의 위정자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 그리고 평화와 세상의 다른 필요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향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로 바칩니다.

총지침은 보편 지향 기도에 대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힙니다. 꼭 의무축일에만 전례의 형식적인 면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례 공동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매일의 미사에서**도 드릴 수 있다면 더욱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함께 해야 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1월 18일~25일) 담화문



##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명 16,20)



+ 평화를 빕니다.

매년 1월 18일에서 25일까지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은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 6,500만 명 가운데 86%는 무슬림이며 10%가량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 1,340여 개의 다양한 민족, 740개가 넘는 토착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1945년 건국 이후 이러한 다양성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원칙(고통로용, Gotong Royong)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정의는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간의 분단이 가져온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경제 발전 과정에

서 생겨난 불평등과 불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망각하게 하였습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불의와 분열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웃을 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정의를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화해와 일치의 전령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흥정 목사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림형석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목사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대한성공회 유낙준 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양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김서호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목사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가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연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임상엽 마르코 신부(원로사목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임상엽 신부는 40여 년간의 사제 생활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제들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신도와 함께하는 사제의 삶’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뜻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며 신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살아있는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학년 모임과 지구 모임을 통해 ‘선배로서의 역할’과 ‘한 해를 보내며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기억’ 등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다. 이번 연수 중에는 교구 ‘길벗 사제단’이 마산가톨릭교육관에 방문하였으며 ‘길벗 사제단’은 신학생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격려했다.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 임효진 야교보 신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19일 통영 해피데이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 12월 1일에 개관하여 지난 10년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년”이란 주제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함께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10년간 복지관과 함께한 이들에 대한 시상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 교구 신양대학 제26기 모집

- ▶ 기 간 : 2년 과정(1, 8월 방학) 매월 첫 (토) 14:00~(주일) 16:00 1박 2일
- ▶ 과 정 : 2019년도 - 영성신학(강영구 신부), 윤리신학(강철현 신부), 구약성경(정연우 신부), 교회론(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성령론·마리아론(정연동 신부), 철학(김호준 신부)  
2020년도 - 신약성경, 그리스도론, 성사와 전례, 교회법, 교회사, 사회교리
- ▶ 지원자격 : 영세한지 만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만 65세 이하)
- ▶ 졸업특혜 : 신양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 등록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 원, 4인실 42만 원)
-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 마 감 : 1. 18.(금)까지
- ▶ 지원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입학 양식을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접수
- ▶ 보내실곳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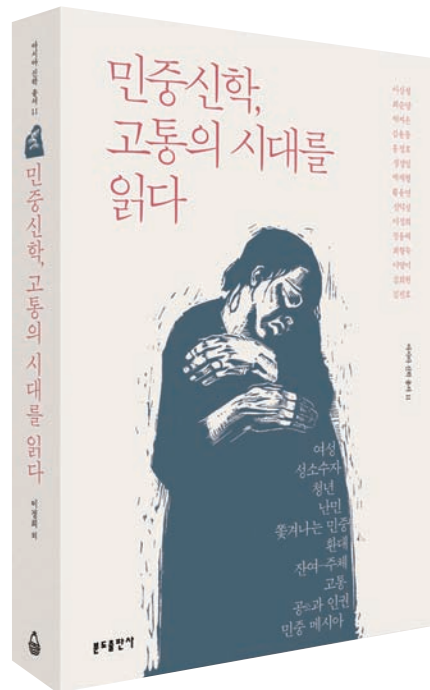
#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 사라지는 지성

새해 벽두부터 좀 무겁고 쉽지 않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가톨릭 출판계의 현황은 아주 참담합니다. 유서 깊은 신학지 『사목』은 이미 오래전에 폐간되었고, 신자들에게 다달이 성경 말씀을 안내해 주던 『성서와 함께』와 『야곱의 우물』도 폐간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나오는 책들은 얇고 내용도 가볍기 일쑤입니다. 읽는 데 수고를 들여야 하는 신학책이나 사상서들은 찾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출간을 아주 꺼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서 비판적 지성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민중의 한恨과 고통을 발견하면서 탄생한 한국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언제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탄식의 증언자로, 감시자로, 그리고 고발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본서는 국내 가톨릭 출판계에서는 처음 펴내는 민중신학 책입니다. 필자 전원이 개신교 신학자들이기에 가톨릭계 출판사에서 왜 이런 책을 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민중신학은 주류 개신교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신학이니 가톨릭에서 환영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팔리지 않을 책임을 뻔히 알면서도 본서를 내고 소개하는 이유는 본서에 담긴 주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본서에 실린 열다섯 편의 글은 전부 우리 이웃의 고통과 관계있는 글들입니다. 민중현상과 그에 대한 사색을 담은 글이라 독해가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시대의 민중과 고통을 언어로 해명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좋겠으나 이 말이 반드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과 억압이 갈수록 다면적이고 교묘히 은폐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언어도 다층적이고 그만큼 복잡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철 외 지음 |

352쪽 | 분도출판사 |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본서는 신학책이지만 신학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참된 종교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대의 고통에 눈감고 대세에 따르면서 양심적 지성을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민중’과 ‘고통’은 그저 전문가들의 영역에 한정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이 두 언어는 항상 ‘하느님의 베푸심’과 함께 갑니다. 본서는 위로와 위안을 주기보다는 불편함과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불안을 껴안고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신앙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은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읽고, 예수를 읽고, 민중을 읽고, 해방을 읽는 독자들이 사라져 가는 세상과 교회에 개신교의 벗들과 더불어 내놓은 책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분도출판사 편집부

## “성직자 병, 여섯”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반말을 한다는 것은,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의 첫 번째 실행 순서입니다. 갑질을 일삼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반말을 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가 반말에 주눅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본격적인 갑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성직자가 신자나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반말을 한다면 ‘갑질 증후군’이 시작되었다는 심각한 증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구에 이런 성직자가 계시다면(물론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높임말 쓰기에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인격의 첫걸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목격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주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깎아 먹는 분들을 봅니다. 거지에게 동냥을 줄 때도, 한 푼을 주어도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성심으로 주는 사람과 돈 몇 푼 주면서 거들먹거리고 반말 찌칙해대는 사람 중에 과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직자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신자들에게 군림하려고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여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느님 사랑 실천을 아름답고 고운 말로 시작하면 어떨겠습니까? 사랑 실천에 앞서가시는 우리 교구 신부님들께 괜한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이도 얼마 안 되었는데)노파심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 성자처럼 즐겨라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배의순 요한 보스코 • 시인

최근 마음이 편치 않은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위하여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정말 끝이 없다. 나에게 주는 고통과 나의 견디기 힘든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자신을 다독이곤 한다. 그리하여 억지 춘향이처럼 웃는 내 모습을 혼자서 상상해보는 것이다. 상상하는 것만 해도 굳어져 있는 나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면서 편해 보이지 않을까.

문득 얼마 전에 읽었던 『성자처럼 즐겨라』라는 책자가 머리에 떠오른다. 이 글제는 미국 예수회 소속 사제, 제임스 마틴이 저술한 서책의 제목이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 인증이 찍힌 책이다. 유머는 복음의 중요한 도구로 규정하고, 신앙이 어떻게 기쁨과 웃음으로 이어지는지, 이 책자에 기술하고 있다.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현실을 깨닫게 하며,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도 눈이 마주치면 먼저 웃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해서 고개를 돌린다. 웃음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다. 어떤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한국에서 왔느냐고 영어로 물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어떻게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외국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택시를 타고 무표정하게 앉아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 있거든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문화는 서양과 다르다. 어쨌든 웃음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감정표현에 솔직하다. 그리고 여자는 잘 울고 잘 웃는다. 여자는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풀어버린다. 하지만 남자는 감정을 가슴에 담아두면서 마음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유머는 많은 경험과 풍부한 상식에서 나온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가엾게 여기는 버릇이 있다. 그럴 때 마음은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분명히 말해서 남이 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삶이란 물처럼 흘러간다. 나의 음지를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여 성자처럼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기억할 사제**

1. 17.(목) : 故 이억민 신부 23주기



**1월 사회교리 및 미사**

일 시 : 1. 14.(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미사 주례 및 강의 : 총대리 박창균 신부  
주 제 : 생명의 원천이었던 쌀은 돈 앞에서 물질이 되었다.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교구 평협 정기 총회 및 복음화 대상 시상식**

일 시 : 1. 19.(토) 14:00  
장 소 : 마산웨딩그랜드  
문 의 : 평협 055)249-7114

**2019년 주일학교 대표교사 연수**

일 시 : 1. 27.(주일) 09:30~16: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2019년 초, 중·고등부 대표교사  
내 용 : 2019년도 청소년국 사목방향 및 행사 안내, 교사관리 시스템 안내, 지구 행사 소개  
참가비 : 1인 1만 2천 원  
준비물 : 2019년 교사수첩, 개인 컵, 필기도구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교구장 동정**

일 정 : 1. 14.(월)~18.(금) 4박 5일  
장 소 : 진동 수도원  
내 용 : 가르멜 수도원 연 피정  
일 정 : 1. 19.(토)  
장 소 : 마산웨딩그랜드  
내 용 : 평협 정기 총회 및 복음화 대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국장 회의**

일 정 : 1. 16.(수)~17.(목) 1박 2일  
장 소 : CBCK

**교 구**

■ **교구 말씀봉사자 집중교육**

일 정 : 1. 14.(월)~16.(수) 3일간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 **복사학교 1차, 2차(1박 2일)**

일 정 : 1차(마산·진주지구) - 1. 14.(월)~15.(화)  
2차(창원·거제지구) - 1. 15.(화)~16.(수)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제435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1. 20.(주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제11차 교구 청소년 성령세미나**

일 시 : 2. 15.(금) 14:00~17.(주일) 16:00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소년(예비 고등학생부터 예비 대학생 까지)  
참가비 : 1인 9만 원, 경남은행 593-22-0355398 재)마산교구  
신 청 : 2. 13.(수)까지(참가비 입금 순 50명), 신청서 작성 후 교구 청년부로 팩스(055)249-7055) 전송  
준비물 : 미사 준비,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목주  
문 의 : 교구 청년성령봉사회  
010-8864-7067, 010-9113-7062  
홈페이지 : <http://myhs.or.kr> 접속 후 '제11차 청소년 성령세미나 참가 신청' 배너 참고  
※ 파견미사 참석 - 2. 17.(주일) 14:00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 관 · 단 체**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월 봉사자 월례회**

일 시 : 1. 14.(월) 13:00/ 장 소 : 옥봉동성당  
특 강 : 성체조배회와 성령의 열매  
(강사 - 이정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 2/12 동부유럽 12일 370만원
- ▶ 2/14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2일 395만원
- ▶ 3/3 발칸반도 12일 360만원
- ▶ 3/14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http://www.cttour.org)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라 파 엘 여행사**

- ◆ 2/25 이스라엘, 이태리 12일 (409만원)
  - ◆ 5/7, 6/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원)
  - ◆ 2/18, 3/19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 ◆ 3/1, 3/17 다낭 5일 (129만원)
-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http://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주 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전 화 : 055)293-5605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 의 : 담당자 010-3903-8234

■ 제225차 여성꾸르실료

일 시 : 1. 17.(목)~20.(주일) 3박 4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교구 꾸르실료 055)249-7113

■ 신앙대학 총동문화 정기총회

일 시 : 1. 19.(토) 10:30  
장 소 : 교구청 2층 회의실  
문 의 : 총동문화회장 010-4581-5420

■ Co. Re. 직속 Cu. 단장 피정

일 시 : 1. 19.(토)~20.(주일) 1박 2일  
장 소 : 산청 성심원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1월 기도 모임

일 시 : 1. 21.(월) 13:30~16: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준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 안내

**필리핀 공동체미사(영어와 타갈로그어)**  
일 시 : 매 주일 14:30/ 장 소 : 칠암동성당  
일 시 : 매 주일 15:00  
장 소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일 시 : 매 주 토 19:30/ 장 소 : 장평성당

**베트남 공동체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 주일 12:30/ 장 소 : 칠암동성당  
일 시 : 매 주일 18:00/ 장 소 : 명서동성당  
**동티모르 공동체미사**  
일 시 : 매 월 셋째 토 20:30  
장 소 : 태평동성당  
문 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기 타

■ 살레시오 젊음의집 상담실 집단 모래놀이 프로그램

일 시 : 1. 27.(주일) 10:00~11:00, 11:30~12:30  
장 소 : 창원 살레시오 젊음의집  
대 상 : 유아, 초등학생과 부모  
문 의 : 055)255-8295/ ※ 선착순 모집

■ 2019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 상 :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 의 : 전진상교육관 02)726-0700/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여좌동본당 2019년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남원철(요한)  
사목부회장(남성) : 이주학(다마세노)  
사목부회장(여성) : 성선거(골롬바)  
총무분과위원장 : 황정욱(시몬)  
기획관리분과위원장 : 안범진(미카엘)  
복음화분과위원장 : 전수진(엘리사벳)  
교육분과위원장 : 황두환(치릴로)  
전례분과위원장 : 김판식(노르베르도)  
구역분과위원장 : 문정애(다니엘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영애(데레사)  
시설관리분과위원장 : 오형석(루치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김도형(빅토르)  
홍보분과위원장 : 안상열(마테오)  
청소년분과위원장 : 황인성(고르디아노)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손정표(바오로)

◆ 상평동본당 사무장 모집 ◆

모집인원 : 1명  
접 수 : 1. 13.(주일)까지  
문 의 : 본당 사무실 055)752-5922,  
010-6583-1884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성령기도회 | 일 시             | 장 소     | 주 제                     | 강 사             | 주 례                 | 문 의           |
|-------|-----------------|---------|-------------------------|-----------------|---------------------|---------------|
| 교 구   | 1. 14.(월) 19:00 | 월남동성당   | 묵주기도의 신비                | 이청준 신부(F.하비에르)  | 이청준 신부(F.하비에르)      | 010-5072-5612 |
| 창원지구  | 1. 14.(월) 19:00 | 반 송 성 당 | 주님께서 인격적 사랑을 원하심        | 황인숙(마리아, 서울대교구) | 안찬모 신부(야시오, 삼일체수도회) | 010-4553-7425 |
| 진해지역  | 1. 14.(월) 19:00 | 중앙동성당   | 한해 동안 하느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최봉원 신부(야고보)     | 최봉원 신부(야고보)         | 010-7566-9441 |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 시             | 장 소        | 문 의           | 비 고                 |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 1. 19.(토) 14:00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010-3800-1579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2월 19일 **이스라엘 오르단**  
대한항공 11일 (399만원)

■ 4월 7일 **터키 그리스**  
대한항공 12일 (379만원)

※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 02)852-8525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



## 사제직은 기쁨과 희망의 십자가

“땅 위에 살고 있는 사제에게 하늘의 일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졌으니, 그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대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으신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8)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의 권한은 육신만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하늘의 권한은 영혼과 관계되고 하늘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권한을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종들의 판단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한 외에도 다른 권한을 사제들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셨습니다(요한 5,22). 그리고 사제들이 이 모든 권한을 아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한 3,5),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은 사제의 거룩한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제의 도움 없이 지옥불을 면할 수 있겠으며 준비된 화관(2티모 4,8)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제들은 세례를 통한 영적 해산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입었고 하느님의 아드님과 함께 묻혔으며 복된 머리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사제직』 3,5-6

동방교회 4대 교부학자 중 한 사람으로, 안티오키아학파의 가장 뛰어난 인물인 요한은 크리소스토무스(金口)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설교가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대표 작품 가운데 6권으로 된 『사제직』은 오늘날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하는 문헌이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당시 사제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권한을 양 떼를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올바른 사제직의 상을 보여 주고자 했다. 무한한 존엄의 직분인 사제직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사제가 존재하는 의미는 하느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사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해야 하며, 백성은 사제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인도되어야 한다. 사제는 땅 위에서 활동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다. 하느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인 사랑과 자비와 연민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다. 사제는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인이다. 직업인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소명인은 하느님께 삶의 기준 자리를 내어 드리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고 모시는 삶을 살려 한다. 그러므로 사제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우뚝 서 계실 수 있도록 햇살보다 더 순수한 골고타 언덕이어야 한다. 골고타 언덕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구세주께서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희생되신 거룩한 장소가 아닌가? 바로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사가 시작된 곳이다. 따라서 사제는 골고타 언덕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제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제는 기쁨과 희망의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골고타 언덕이어야 한다. 언덕이 있어야 영광의 십자가도 세워지고, 성모 마리아께서도 서 계실 수 있다. 사제 스스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세상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우들에게 사제는 기쁨과 희망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골고타 언덕이다. 성모 마리아와 의인들, 죄인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바로 그 골고타 언덕이어야 한다.

